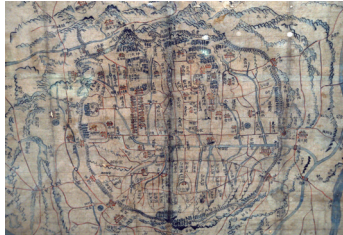




3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까닭

- (1) 도읍을 옮긴 까닭 : 이성계는 나라의 모습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한양(서울)을 도읍으로 정하였습니다.
- (2) 한양이 도읍으로 적합한 까닭 **자료 4**
 - ①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다.
 - ② 한강이 있어 육로 및 수로 교통이 편리하였습니다.
 - ③ 산으로 둘러싸여 외적 방어에 유리하였습니다.
 - ④ 주변에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.
- (3) 유교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한양
 - ① 정도전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교 정신을 담아 경복궁, 종묘, 사직단 등의 위치와 이름을 정하였습니다.
 - ② 도성 둘레에 성곽을 쌓아 동서남북에 사대문을 만들고,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을 반영하여 이름을 붙였습니다. **자료 5**
- (4) 한양 둘러보기 → 서울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에는 종묘, 창덕궁 등이 있어요.



▲ 도성도

→ 사대문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유교의 인의예지를 나타내요.

자료 4 한 나라의 도읍으로서 좋은 곳

- 나라의 중심에 위치해야 합니다.
- 사람들이 살기에 좋도록 땅이 비옥해야 합니다.
- 강이나 바다에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.

자료 5 한양의 사대문

| | |
|----|------|
| 동쪽 | 홍인지문 |
| 서쪽 | 돈의문 |
| 남쪽 | 숭례문 |
| 북쪽 | 숙정문 |



▲ 숙정문 : 한양 도성의 북쪽 대문



▲ 한양 도성 : 한양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 시대의 성곽



▲ 경복궁 : 조선 시대에 첫 번째로 만든 조선 왕조의 궁궐



▲ 사직단 :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



▲ 숭례문 : 한양 도성의 남쪽 대문



▲ 보신각 : 조선 시대에 도성 문을 여닫는 시각을 알리거나,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누각



▲ 수표교 : 조선 시대에 물의 양을 재는 수표를 세웠던 다리 → 지금의 청계천 위치에 있다가 장충단 공원으로 옮겨졌어요.



▲ 홍인지문 : 한양 도성의 동쪽 대문



▲ 종묘 : 조선 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



▲ 창덕궁 : 조선 시대에 태종이 지은 궁궐로,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.

4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노력

- (1) 유교의 가르침에 따른 나라 세우기 → 조선은 세운 신진 사대부는 유교를 나라의 기본 정신으로 삼았어요.

- 왕은 정치를 잘하기 위하여 ^⑦충직하고 현명한 신하의 바른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.
- 나랏일을 맡은 관리는 오직 의로움을 따져 행하며 개인의 욕심을 멀리해야 합니다.
- 양반은 바른 행동으로 백성의 모범이 되고, 농민·상인·수공업자는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.

용어 사전.....

⑤ 신주

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.

⑥ 사당

조상의 신주를 모셔 놓은 집.

⑦ 충직 (忠 충성 直 직 율을 직)

충성스럽고 정직함.